

이른 더위에 도내 온열질환자 속출

전주·완주 낮 최고기온 35.4도 기록 익산·임실·순창 폭염주의보 발효

전북에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가 각각 낮 최고기온 35.4도를 기록했다. 뒤이어 정읍 34.9도, 순창 34.0도, 김제 33.9도, 익산 33.7도, 남원 33.5도, 부안 32.9도, 고창 32.6도, 임실 32.5도, 군산과 무주가 각각 32.2도, 진안 31.8도, 장수 30.6도를 기록했다.

이번 더위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 지난 17일에는 익산이, 18일에는 임실과 순창 등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

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북의 온열질환자는 총 11명이 발생했다. 이중 열탈진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 2명이었다.

이중 10명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됐다. 발생장소는 산·논·밭이 4명, 집 3명, 도로 1명, 상업시설 1명, 기타 3명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위를 이기지 못한 온열질환자들이 발생했다.

이날 32.2도를 기록한 군산시 임피면에서는 오전 11시 39분께 열탈진으로 A(70)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되기도 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발생하며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시 가능하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한다. 폭염 때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소금·염음으로 몸을 닦거나 바람을 쐬어 체온을 내려야 한다.

전북 보건당국은 폭염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도는 무더위 쉼터 5356개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상시개방했으며, 폭염저감시설(그늘막 884개, 쿨링포그 등 235개) 운영에 들어갔다. 또 경찰과 소방 협조를 구하고, 독거노인과 야외근로자, 고령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수시방문과 전화 등 예찰 활동도 실시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대비하고자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더위는 20일 서해안부터 시작되는 빗줄기가 21일 전북으로 확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잎 그늘에서 쉬고있는 새끼 오리들. 완연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새끼 오리들이 연잎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북 시외·농어촌버스 노조, 총파업 가결

노조 7.4% 인상에 사측 1.7% 제시 결렬돼... 22일 막판 협상

임금인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해온 전북지역 시외·농어촌버스 노조조합이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13~1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383명 중 1249명인 90%가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7.4% 인상해달라며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1.7% 인상을 고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말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통 부담 차원에서 장기간 임금 동결을 감수했다며, 사측의 전향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전북도내 업종별, 지역별 월 근로시간과 임금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주시내버스보다 (시외·농어촌버스 종사자는) 월 42시간 더 일함에도 시급은 2100원 이상 덜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지노위 조정 만료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2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지노위 조정 만료일 전 사측과 노조 측의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22일 사측과 노조 측간 마지막 교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파업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뉴스

전주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체계 가동

7-8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오염사고 예방 등 위한 특별단속 추진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앞두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체계를 가동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

달 중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미숙이나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주요 하천인 전주·삼천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동시에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에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기관별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와 감시 사각 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무단배출 행위나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63-128)나 시청 상황실(063-281-222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개선방안 모색·정보 공유

전주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3개 제공기관과 간담회 가제



전주시는 19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실무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는 19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실무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홀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가사 활동 등을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방문목욕 2개소를 포함한 총 13개소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189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는 각 제공기관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서로

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매 분기별로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활동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외부 점검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교훈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돼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고 자립생활이 실현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대병원 한민정 교수, 대한소아신경학회 젊은 연구자상

춘계학술대회서 연구 우수성 등 인정 받아 수상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한민정 교수가 제54회 대한소아신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3년도 대한소아신경학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소아신경학회는 1993년 발행해 연 2회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제 54회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대한소아신경학회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은 연구업적

이 뛰어나고 학문적 기대가 높은 젊은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점입의 이상의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만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공모해 선정했다.

한 교수는 'Acoustic differences between healthy an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건강한 아이들과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 사이의 음향적 차이)에 대한 연구로 주제의 창의성, 내용의 우수성,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소아신경질환, 뇌전증(간질), 소아청소년기 두통, 발달지연, 언어지연, 소아청소년 일반질환 등을 전문분야로 활동 중이다. /뉴스

